

# 다가오는 우주 시대, 가상공간이 현실로

글\_ 최영순 중앙고용정보원 선임연구원 iwthy@work.go.kr

우주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이다. 영화 'E.T'를 통해 우주에 대한 친근감을 보여줬던 스티븐 스필버그는 100년 전 출판된 소설 '우주전쟁'을 영화로 만들면서 우주를 지구인과 조우하기 힘든 존재로 묘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주는 더 이상 영화, 게임, 소설 등에서만 등장하는 가상의 공간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에 도착한 이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였다. 비록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였지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 항공우주국의 세 번째 우주왕복선인 디스커버리호의 귀환모습이 전세계에 동시 생방송돼 이곳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음과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 달 여행 일정 짜는 '우주여행 기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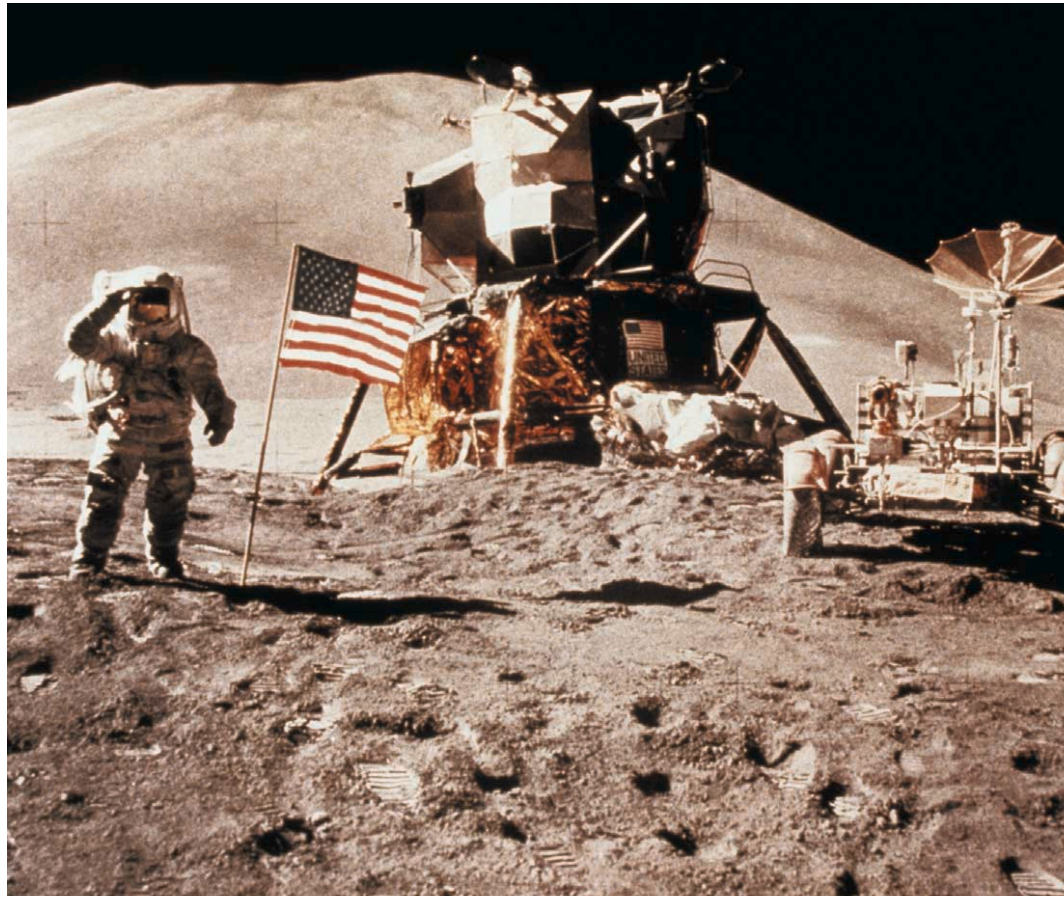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주연구와 탐사의 길을 넓혀 주었고 우주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더욱이 우주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장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주에 관한, 혹은 우주에서 종사하는 직업이 속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우주선을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이나 우주비행사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직업이 아니며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호기심,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달이 결합되어 우주공간 특유의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값을 조롱이라도 하듯 달의 땅을 팔고 있는 부동산 업자가 생겨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구입했다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십수년 전만 해도 '달나라 땅' 매매는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버젓이 회사까지 차려 수십억 원을 번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김으로써 달나라 땅값 상승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을 까라는 기대도 해본다.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이 오늘날의 정수기 업자로 묘사될 수 있다면 달나라 분양도 멀지않아 보다 현실성을 띠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주공간이라고 다를 바 없다. 미국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달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우주여행사가 성업중이며 고객을 모으고 있다. 우주여행을 기획하는 여행상품 기획가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들은 지구에서의 여행과 마찬가지로 10~20일 정도의 달 여행 일정을 짜고 1억 달러 이상의 여행경비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전세계 500~1천 명 정도의 부호를 상대로 홍보를 하며 신청한 고객을 상대로 필요한 교육을 시키게 될 것이다. 아직 일반인이 달에 발을 디는 것은 여러 제약이 있어 우주 비행사와 동행하게 된다. 이 우주 비행사는 여행 가이드 혹은 비행기 승무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NASA에서 엘리베이터로 우주까지 올라가 관광하는 전망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면 우주여행 가이드의 활동무대는 다양해질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생활은 무중력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체력소모 또한 크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환경을 견딜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보충이 필수적이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동작 자체가 자유



롭지 못하겠지만 우주음식전문요리사가 준비한 음식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우주비행사의 건강을 위한 전담 인력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의 우주여행이 활성화된다면, 또한 우주 공간이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된다면 전문요리사의 손길도 바빠질 것이다.

### 무중력 활용 질병치료 연구 의학자 늘어날 것

여행지에서 편안한 휴식 또한 필수인 것처럼 우주에서도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호텔이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의 일부 대학교에서는 우주에서의 건축공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도 하고, 이에 관심 있는 젊은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우주정거장, 호텔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을 우주 공간에 지을 건축가가 멀지않아 탄생하리라 본다. 지구상의 호텔내에는 수십 개의 직업이 존재하는 만큼 우주 호텔 역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의 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우주공간에서는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등의 신체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의 신

체변화를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어 향후 우주공간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혹은 의학자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다.

약 150억~200억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우주에는 지구와 동일한, 혹은 전혀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을지 모르며 천연자원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우주의 환경생태계를 연구하는 전문가 역시 우주시대 개막과 함께 그 빛을 더할 것이다.

우주와 관련한 직업은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하며 계속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주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기술진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도 2007년까지 최초의 한국인 우주비행사를 선발하여 러시아 우주선에 탑승시킬 계획이다. 또한 우주센터를 건립하여 세계에서 13번째 위성발사장 보유국이 되기 위한 도약을 준비중이어서 우주를 무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한국인이 등장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